

호주 온라인 식품 배달서비스 인기

자카르타지사

변화하고 있는 호주 온라인 식품배달서비스 시장

- 호주의 식품 배달서비스는 슈퍼마켓과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 중심이었지만 온라인 상의 식품배달서비스와 식재료 배달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호주 현지소비자들의 음식 및 식품 구매행태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호주의 온라인 식품 배달서비스 시장은 2017년 기준 27억 호주 달러를 기록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호주 온라인 식품 배달서비스는 음식 배달과 식재료 배달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대표 식품 배달서비스 업체



메뉴로그(Menulog)는 호주의 대표 온라인 음식 배달서비스 업체로 광범위한 제휴 레스토랑 네트워크를 자랑하며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딜리버루(Deliveroo)는 영국계 글로벌 기업으로 호주를 포함한

12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버이츠(Ubereats)는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우버(Uber)에서 출시한 배달서비스로 기존의 우버 고객은 등록되어 있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 온라인 식재료 배달서비스 업체들



헬로프레시(Hello Fresh)는 TV시리즈 마스터셰프의 최종 우승자인 톰 러틀리지가 설립한 업체로 러틀리지의 레시피가 포함된 식재료를 배달한다. 또한 채식

주의자들을 위한 메뉴도 제공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마케팅과 호주 전 지역에서 이용가능한 서비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말리스푼(Marley Spoon)은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14년 설립 후 이듬해인 2015년 호주에서 서비스

를 시작하였다. 시드니, 캔버라, 멜버른, 브리즈번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호주 전 지역에 배달이 가능해 인기를 끌고 있다.

관심 가져야 할 한국 식품 배달서비스 시장

-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음식 배달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호주의 온라인 식품 배달서비스 산업은 아직 초기단계로 유사한 스타트업이 많이 등장하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식품 또한 전통적인 유통채널에서 벗어나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식재료 및 식품 배달서비스 도입에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메뉴로그(www.menulog.com.au), 딜리버루(deliveroo.co.uk), 우버이츠(www.ubereats.com/en-US), 헬로프레시(www.hellofresh.com), 말리스푼(marleyspoon.com)